

벤처 레이더

VENTURE

Radar

⊗ 정책동향 ...

KOVA

중기청, 중소·벤처 투자마트 참가기업 모집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중소·벤처기업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벤처 투자마트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중기청은 기업평가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투자마트 참여 기업에게는 엔젤클럽 등으로 결성되는 엔젤투자협력체(KBAN)를 통해 IR자료제작, 업체홍보,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마트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업체자가진단표를 작성해 28일까지 각 지방 중기청에 신청하면 된다.

공무원에게 SW단속 사법권 부여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SW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한층 엄격해진다.

정보통신부(장관 이상철)는 SW불법복제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권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달 중 임시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5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 산하 각 지방 체신청이 운영중인 SW불법복제 상시단속반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발될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상 SW를 불법복제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500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진다.

⊗ 업계동향 ...

KOVA

국내 IT/BT산업 중국진출 확대 전망

국내 정보기술과 환경산업의 중국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장관 전윤철)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제7차 한·중 대외협력기금(EDCF) 정책협의회를 열고 새정부 출범후 5년간 중국에 대한 EDCF 지원을 IT/BT, 서부대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의 경제개발 지원자금인 EDCF는 지원자금 전액을 국내 원자재 구입에 사용해야 하는 기차재차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EDCF로 지원하는 금액만큼 국내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중국 현지 사업의 직접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중국 서부대개발사업의 경우 도로, 토지개발, 공영주택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이 본격 추진 중이지만, 국내기업들의 참여가 전무한 상태여서 우리나라의 자금지원만 이뤄진다면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사업분야다.

환경분야는 대기오염방지와 하수도건설 등에서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미 중국시장을 선점해 진입장벽이 높지만 EDCF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활로를 마련한다는계획이다. IT산업은 우리나라의 IT강국 이미지를 앞세워 중국내 통신망 현대화와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등에서 국내 기업들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EDCF 지원은 지난 2년간 하북성 천진-보정 도로건설에 2000만 달러, 감속대 농업기술학교 200만달러, 상해시 정안구 입체주차장 건설 252만달러, 중경시 팽수도로건설 495만달러, 안휘성 광덕 상수도건설 450만달러 등 모두 3400만달러에 달한다.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도입으로 BT산업 활성화

자기장을 이용해 단백질을 원소(질량)별로 분리·규명할 수 있는 고분해능 질량분석기가 늦어도 내년말께 도입돼 BT개발 및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장관 채영복)는 1일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구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최근 구성되는데 이어 이달 중순께 1차 위원회를 열어 질량분석기 도입시기와 사양, 예산 등 제반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분해능 질량분석기는 BT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분야로 평가되는 단백질체학(Proteomics)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도구로, 각종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신약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질량분석기는 또 생물정보학 연구와 단백질체학 생물정보 인프라 구축, 분자의과학연구, 식품생명공학, 보건의료기술, 뇌의약학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질량분석기는 3대 뿐인데다 모두 소형이기 때문에 화학분야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고분해능 질량분석기는 12테슬라급 ESI 및 MALDI FT-ICR MS 각 1기씩으로 기당 25억원 가량이다. 부대 장비까지 포함할 경우 총 도입비는 70억원 가량에 이른다.

☞ 산업동향 ☜



세계 IT보안산업 2006년까지 두배 성장

전세계 IT 보안산업의 규모가 오는 2006년에는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4일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I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IT 보안시장의 매출 규모는 지난 2001년의 170억달러에서 오는 2006년에는 450억달러로 늘어나 5년만에 2.6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보안 하드웨어 부문의 매출이 오는 2006년까지 연 평균 25%씩 증가하고 서비스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도 각각 24%와 16%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이언 버크 IDC 선임 분석가는 “보안 관련 부문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최우선 투자 항목”이라며 “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신원 관리 및 웹서비스 부문이 향후 5년간 보안업계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벤처 건전화방안에 따라 23% 감소

벤처기업 지정 기준 강화 등에 따라 지난해 벤처기업이 2614개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중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

준으로 벤처기업 지정업체는 8778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1년 말에 비해 23% 감소한 것이다.

벤처기업 수는 중기청 벤처기업 확인업무를 시작한 1998년 말 2042개를 시작으로 1999년 말 4934개, 2000년 말 8798개, 2001년 말 1만1392개 등 매년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

이같은 벤처기업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정부의 벤처 건전화방안에 따라 확인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벤처기업의 지정 취소가 늘었고 신규 신청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 기술동향 ☜



직류저주파 분야 인터넷 원격교정 시스템 개발

전기기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직류 저주파(100kHz 이하) 기기의 국가표준을 인터넷을 통해 원격 교정(remote calibration)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승남 책임연구원팀은 4일 산업체와 국가교정검사기관에서 전기(직류 저주파) 기기의 교정용 표준기로 사용하고 있는 메타교정기에 인터넷을 통해 국가 표준을 전달,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표준전달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 장치는 메타교정기와 인터넷 프로토콜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박승남 박사는 “이번 연구는 국가 표준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첫번째 시도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표준전달장치 없이 인터넷이나 위성을 통해 국가 표준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올 상반기부터 본격 제공된다.

세계 최소 캡슐형 내시경 ‘미로(MIRO)’ 개발

세계에서 가장 작으면서 기능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캡슐형 내시경이 우리 독자기술로 개발됐다.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린터개발사업인 지능형 마이크로시스템 개발사업단(단장 박종우)은 28일 복용과 동시에 식도, 십이지장, 소장 등 소화기 계통의 출혈과 궤양, 염증, 그리고 암 등 종양을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비타민 알약 크기의 지름 10mm, 길이 25mm 인 캡슐형 내시경 미로(MIRO)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캡슐형 내시경은 마취, 구토감 등을 일으키지 않으며 지금까지 내시경을 거의 사용할 수 없었던 소장까지 정밀하게 촬영,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연구팀은 전했다.

이번 캡슐형 내시경 시스템의 국산화율이 95% 이상이라고 밝히고 올해 상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